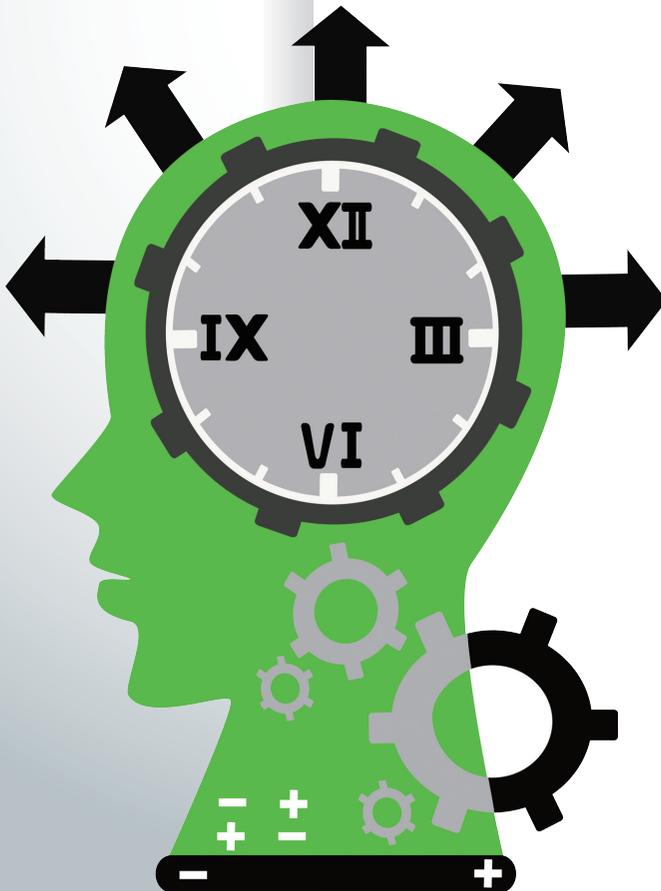


01

*Soul, Origin, Utility, Power*

# 생각에너지의 시간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은 아마도 인간 개개인의 내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석유나 가스과 같은 천연자원은 거의 고갈되어 가고 있고 대체 에너지를 찾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인류의 다음 세대를 밝혀 줄 안전하고 확실한 에너지원의 발견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인간 내면의 에너지원은 거의 개발되지 못한 채로 남겨져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창조적 에너지이다. 페르디난도 포슈(Ferdinand Foch)는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불타고 있는 인간의 영혼이다.”라고 말했다.<sup>1</sup> 우리에게는 어느 특정한 날의 자극만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에너지가 자신 안에 잠들어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반쯤만 깨어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불꽃은 낮춰져 있고 배기관은 닫혀 있다. 인간은 다양한 능력과 엄청난 잠재 에너

지를 가지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윌리엄 제임스<sup>2)</sup> William James는 “인간은 자신의 내부 깊숙한 곳에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를 보관하고 있으며 그러한 저장된 에너지는 깊고 깊은 층에 폭발성 물질로 감추어져 있어 그 깊이까지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창의성의 에너지를 찾아 길을 떠나야 하며,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에 불을 댕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다. 먼저 길을 떠나기 전 우리의 위치와 방향을 재설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어디쯤 와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아마도 이 질문은 지구상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반복된 명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렇게 미래예측에 집착하는가? 그것은 아마도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눈을 감고 달리는 것과 같기 때문일 것이다. 3000년간 지속된 농경시대나 200년간 유지된 산업 시대에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미래를 몰라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정보화 시대는 50년 만에 지나가고, 이어 등장한 후기 정보화 시대는 10년 만에 지나갈 것이다. 미래를 모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뜻이다. 이렇듯 사회현상의 변화가 시간적·공간적으로 한 개인의 예측력을 훨씬 능가하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이 때, 새로운 시대적 흐름은 무엇인가?

##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우리는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열차 좌석에 앉아 테이블 위에 커피가 가득 담긴 컵을 올려 놓고 차창 밖의 풍경을 바라본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 그 속도를 느끼지 못할 뿐 열차는 무섭게 달려 가고 있다. 그 속도를 체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객관적 위치에서 과거를 조명해 보려고 한다.

지금, 21세기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코페르니쿠스적 대 전환의 포인트에 서 있음을 깨닫는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이 쓴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위대한 작품에서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자전하고 매년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태양 중심 우주론을 주장했다. 1543년에 세상의 모든 문명은 우주의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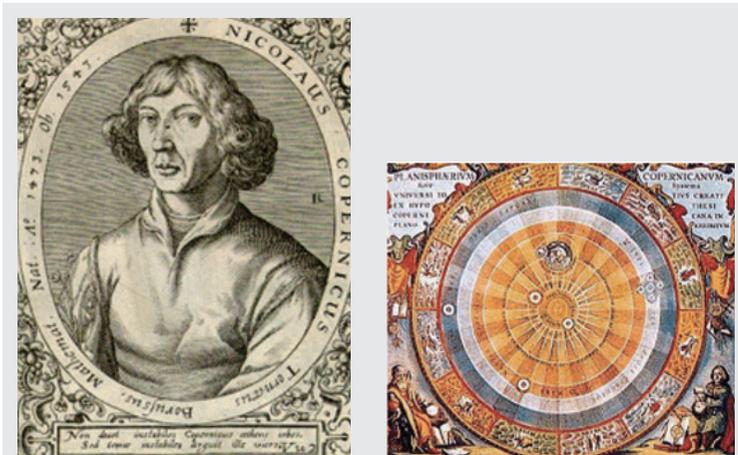


그림 1.1 코페르니쿠스와 솔라시스템(solar system)

에 지구를 두고 있었다. 전통적인 천문학적 지혜이며 성경이 보증하는 진리인 지구 중심론과 그렇게 완전히 결별함으로써 코페르니쿠스<sup>3</sup>는 과학 혁명에 불을 댕기고 근대적인 과학적 세계관의 형성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다.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주창된 지동설은 당시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완전히 뒤집어 엮은 일대 사건이었다. 우리가 서 있는 현 시점도 네트워크의 발달로 그때와 맞먹는 인류역사의 대변환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다. 단지 관성에 의해 둔감해 있을 뿐 그 변화는 전율할 정도로 가속되고 있다. 향후 10년간의 변화가 인류역사 전체의 변화와 맞먹을 것이라는 얘기도 전해진다. 마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대변환처럼 말이다.

미래학자들은 농경사회가 고체사회라면 정보와 지식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지금은 액체사회<sup>4</sup>라고 지적한다. 농경시대와 산업시대에는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었다. 산업시대에는 공장을 하나 지으면 30년은 그 공장 주변에 공장 일꾼들이 마을을 만들어 함께 살면서 거주지를 형성하였다. 농경·산업시대를 고체사회라고 한다면 이제 고체로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액체로 흐르는 강물의 사회(fluid society), 액체 환경(fluid environment)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고정된 것이라고는 없다. 어제의 것이 오늘은 변해 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은 물처럼 흐르고 있다. 이렇게 사회를 물처럼 흐르게, 고체가 아닌 액체로 만드는 장본인은 바로 네트워크 사회이다. 모든 정보와 지식이 물처럼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은 네트워크에 극도의 충성도를 보인다. 인터넷의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전달한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인 소셜 네트워크로 방향을 틀고 대의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래의 정부는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해서 힘이 약화되는 정권이 나온다는 것이 미래예측이다. 똑똑한 개개인이 권력층으로 부상하면서 2030년이 되면 70% 정도의 권력을 갖게 되고 정부 정권은 30% 정도의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차세대 권력구조에 대한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다.

미래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프로젝트당 팀을 만들어 일하고, 재택근무를 하며 인터넷베이스로 일하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 일자리는 모두 비상근 자유업(free agent workforce)이 되기 때문에 2020년만 되어도 인구의 절반이 프리랜서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미국의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ur Statistics)에서는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높아지는 비정규직 파트타임이 2010년에 창출된 59만 3천 개의 일자리 중, 68%인 40만 4천 개가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모든 개념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범세계적으로 촉진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응해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지만,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주하거나 머뭇거리다가는 스스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두려움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의 커다란 기회로 삼아 제2의 코페르니쿠스적 포인트에서 있는 야심찬 21세기의 모던 르네상스인들이 되어 보자.

## 콘셉트와 감성의 시대

지난 세기가 과학과 물질문명의 발달로 환경과 인간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네트워크로 세계의 인간을 교감시켜 인간성 회복을 촉진하는 감성의 세기가 될 것이다. 진보된 과학기술은 인간성 회복을 위한 매개체가 되어 인간의 순수본성을 만족시키고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 이용될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가 만족시켜야 할 인간의 순수본성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선과 악, 아름다움이나 추함과 같은 이분법적 개념을 초월하여 다양한 자아의 개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으로 알고 있던 것은 이성의 틀에 갇힌 채, 의식 위로 떠오른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순수본성은 여전히 무의식의 바다에 잠겨 있으며 어쩌면 인간 스스로 자신의 내면의 본성에 대해 눈 감고 있었는지 모른다. 새 시대가 찾아야 할 인간의 본성은 바로 감춰져 있던 내재된 감성으로 인간은 이런 감성을 느낄 때, 순수본성의 만족인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 순수본성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동시에 작용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역과 세대를 초월한 심리와 생리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알아내어 Grand Market Standard 정보공유가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저마다 유전적, 경험적, 개성에 따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적 자아의 실현욕구나 창의적 욕구가 서로 다른 특별한 존재이다. 이러한 상반된 특성을 가진 깊숙한 내면에 내재된 인간의 순수본성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등장한 학문의 분야가 바로 감성공학이다. 감성공학(sensibility engineering)이란 인간의 감성을 정성과 정량적으로 측정, 평가하고 이를 제품이나 환경설계에 응용하여 좀 더 편리하고 안락하며 안전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쾌적하게 하고자 하는 기술이다. 과거 산업시대의 대량생산 기술이 인간의 팔, 다리와 같은 신체적 노동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다면 디지털과 바이오로 대표되는 미래의 기술은 인간의 머리와 가슴에 해당하는 정신과 감각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미래기술은 인간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읽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산업사회의 원동력이 이성이었다면 디지털 정보화 사회의 경쟁력은 감성이 될 것이다.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외부환경 변화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본성은 극도의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외적상황의 불안정성에서 인간을 정서적으로 안정시켜 주고 편안함을 찾아 주는 미래기술이 바로 감성공학인 것이다. 일본 신슈대학교의 Shimizu 교수는 “감성공학을 마음과 정보의 교류를 통해 인간의 행복을 지원하는 체계”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사회에서는 그 어떤 능력의 소유자보다도 주위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잘 받아 들이고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마음을 잘 전달할 줄 아는 감성이 발달한 사람이 주목받게 될 것이다.

유럽 최대 규모의 미래문제 연구소로 평가되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미래학 연구소장인 롤프 예센(Rolf Jensen)은 자신의 저서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정보화 사회 이후의 사회를 꿈의 사회, 즉 드림 소사이어티가 전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물질은 풍족하다 못해 진부해졌으며 한 나라